

AIDS NEWS

에이즈 바이러스-임신 同時 차단

에이즈 바이러스와 임신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살정자제(殺精子濟)가 미국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미국 휴즈연구소 연구팀은 과학전문지 <생식생물학>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현재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살정자제 노녹시놀-9보다 에

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4백 배나 강한 초강력 살정자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 새로운 살정자제가 정자를 죽이는 힘도 노녹시놀-9보다 10배나 강하다고 말했다.

(세인트폴.보스턴 AFP.UPI=聯合)

에이즈치료제 3TC B 간염에도 효과

에이즈 치료제중 하나인 3TC가 만성 B형간염으로 발생하는 간기능의 손상을 상당히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대학의 라이 창-롱 박사는 미국의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저널 오브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에이즈 치료제로 쓰이는 역전사효소차단제중 하나인 3TC가 만성 B형간염을 치료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실험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보스턴 AP=聯合)

에이즈치료제 개발임박

현재 쓰이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기능을 공격하는 치료제 말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증식을 위해 정상세포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새로운 차원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대학의 대니얼커리츠키스 박사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 12차 세계에이즈 학술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증식하는데 필요한 효소를 차단하는 것보다는 에이즈 바이

러스가 아예 정상세포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현재 이러한 목적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커리츠키스 박사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정상세포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세포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CCR-5와 CXCR-4라고 밝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제는 이 통로를 가로막는 이른바 "융합차단제"라고 말했다.(제네바 UPI=聯合)

감염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美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밝혔다.

CDC는 가난한 젊은이와 고교 중퇴

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연방직업프로그램에 등록된 35만명의 젊은이를 상대로 지난 90년부터 96년까지 7년간 HIV 감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16-21세 사이 여성의 HIV 감염률이 같은 연령층의 남성보다 50%나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고 감염률은 흑인 여성으로 1천명당 5명꼴로 HIV에 감염됐다.

(에틀란타 AP=聯合)

에이즈감염자가 혈액 피 팔아

필리핀의 한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가 최근 수개월동안 적어도 5차례나 상업적 혈액은행들에 자신의 피를 팔았다고 고백함에 따라, 필리핀 보건부는 자국내 혈액은행들과 병위들에 대해 이같은 HIV오염 혈액 수혈로 인한 에이즈 확산위험을 경고했다.

필리핀 정부는 자발적 혈액 기증 프로그램을 갖고있지 않으며, 따라서 수혈에 쓰이는 혈액의 대부분은 이 나라의 29개 상업적 혈액은행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마닐라 AP.AFP=聯合)

泰 법정질환 불법근로자 추방계획

태국 정부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새 조치의 하나로 공중보건부가 제시한 7개 질환 중 어느 한가지에 걸린 것으로 판명된 불법 이민근로자들을 추방할 계획이다.

이들 7개 질환은 ▲결핵, ▲나병, ▲象皮膚病, ▲매독, ▲마약중독, ▲알코

가난한 10대 여성 에이즈 감염률 높아

미국의 가난한 젊은 여성이 남성 상대자들보다 에이즈 바이러스(HIV)

AIDS NEWS

올중독, ▲정신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이다. 에이즈 바이러스(HIV) 검진은 전염병 연구를 위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만 허용키로 하고 강제성은 따지 않기로 했다. (방콕=聯合)

HIV감염 美여인 복수극에 나서

남자친구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된 미국의 한 여인이 복수극에 나서 최소한 50여명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에 처했다.

테네시주 루이스버그 거주 퍼멜라 와이셔(29)는 자신이 일하는 바에서 지난 1년간 만난 50여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그녀는 동침전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고 말해도 상대방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의 복수작전은 그녀와 동침한 뒤 HIV감염검사를 받은 사람의 제보로 발각됐다. (루이스버그 AP,UPI=聯合)

모스크바 러시아서 HIV 확산을 최고

러시아에서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곳은 모스크바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러시아 에이즈예방치료센터가 밝혔다.

올해 모스크바에서는 9백 40명의 HIV 양성 반응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백29명 늘어난 것이다. 포크로프스키 교수는 이같은 HIV 확산은 마약 사용 증가와 매춘부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AP=聯合)

에이즈 고교생 또 발견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 1명이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경우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 공식 보고된 성접촉을 통한 고교생 에이즈 감염자로는 4번째며, 특히 동성애에 의한 사례로는 지나 80년에 이어 두번째다.

이와 관련해 한동안 주춤했던 초·중·고 대학생 등 학생 에이즈 감염자가 올 상반기에만 벌써 4명으로 급증해, 청소년 에이즈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국립보건원이 지난 2월 고교 재학중인 한 학생의 혈액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최종확인했다고 밝혔

다. 헌혈을 통해 접수된 이 학생의 혈액은 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도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나타났다. 이 고교생은 지난해 우연히 알게 된 30대 에이즈 감염자와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아직 환자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중·고교와 대학생 등 학생감염자가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감염자는 지난 86년 처음 발견된 이래 87년 2명 등 매해 1~2명 정도에 그치다가 91년과 92년 각 3명, 93년 4명, 94년 5명 등으로 늘어났다. (한겨레신문 98. 8. 27)

복지부 혈액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 매매행위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사고 팔거나 그같은 행위를 교사, 알선, 방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혈장 헌혈등 '성분 헌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매매행위가 일절 금지돼 혈액공급이 헌혈체도로 완전히 전환된다.

개정안은 또 혈액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혈액원 및 의료기관에 대해 수혈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을 경우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에 대해 무조건 혈액원을 개설토록 한 의무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점을 감안, 이를 폐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등만 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聯合)